

김재영의 『코끼리』를 통해 본 서발턴의 서사

이 남 정*

요약

서발턴(Subaltern)이란 단순히 하위주체나 하위계급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전(全)지구상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으며,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갖는 주체”를 말한다. 이에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은 ‘세계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제3세계라는 공간적 조건과 계층적 하위성, 그리고 젠더 문제를 결합’하여 서발턴이란 개념을 재의미화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김재영의 『코끼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서발턴 연구가 저항성이 내포된 종속적 집단으로서의 서발턴에서 자본주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적 가부장제에 종속된 개인, 특히 제3세계의, 특히 여성으로서의 서발턴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타자화·주변화 된 채 자본의 권력에 종속된 개인인 이주노동자로서의 서발턴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그러한 서발턴에 또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서발턴, 즉 아동으로서의 서발턴에 주목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재영의 『코끼리』는 다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탈영토화’하고, 다시 낯선 곳에서 ‘재영토화’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가장 남루하고 비참하며 슬픈 타자”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탈영토화’되어 본 적도 없이 ‘재영토화’된—혹은 그에 실패한—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도, 국적도 없이 그림자처럼 종속된 이주민들의 자녀들을 아동 서발턴의 개념에서 분석하는 일은 서발턴 연구 동향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재영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의식을 문학적 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 중에는 “이주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를 주제로 삼은 것들이 많다. 한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1920년대 카프의 문학이나 1980년대 노동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공식주의나 도식성의 문제 및 한계”에 부딪히지만 단 하나의 분명한 문제의식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양한 각도로 민족과 국가의 성찰과 심문을 요구하는데, 김재영의 작품 속 인물들이 서발턴과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다문화 현상은 전(全)지구적 현상이지만, 이주자들은 여전히 현대받지 못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철저히 타자화·주변화 되어 있으며, 국가주의에 의해 ‘불법’으로 낙인이라도 찍히고 나면 그들은 목소리조차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가 무국적 이주민이라는 사실로 인해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동’을 서발턴의 개념으로 재고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서발턴, 아동-서발턴, 아동권리, 국적 없는 아이, 저항성의 주체, 김재영, 코끼리, 다문화소설, 존재하지 않는 생명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와 이주노동자로서의 서발턴
3. 신민족주의 시대와 아동으로서의 서발턴
4. 저항성의 주체, 그 희망적 서사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서발턴’이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가 『옥중수고』에서 처음 사용한, 일종의 은어였다.¹⁾ 그람시에게 서발턴은 “집중적이고 통일된 어떤 주체가 되기 어려운, 수없

이 널리 있는 종속 집단들을 통시적”으로 일컫는 용어였으며,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만, 필요한 경우 지배집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력을 말한다. 특히 그는 “지배 계급의 문화와 언어에 끊임없이 규정 당하면서도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민중의 독자적인 세계관, 즉 종속과 자율의 복합성에”²⁾ 관심을 가졌으며, 혁명의 주체에서 배제되어왔던 부차적 집단, 다시 말해 이중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을 포괄했다.³⁾

1980년대 초 인도 출신의 역사학자 라나지트 구하(Ranjit Guha)는 인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면서, 오랫동안 인도 역사학의 주류를 형성해 온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을 비판하고, 그러한 역사 해석들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어 온 인도의 민중, 즉 서발턴의 입장을 인도사에서 재인식·재구성하고자 했다. 구하에게 서발턴은 “계급, 카스트, 연령, 젠더, 직위의 측면에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든, 남아시아 사회에서의 종속이라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하나의 이름으로”⁴⁾ 정의된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에게 서발턴은 “이중으로 그림자 속에” 있는 “제3세계 여성”을 포함한다. 스피박은 “세계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제3세계라는 공간적 조건과 계층적 하위성, 그리고 젠더 문제를 결합”⁵⁾하여 서발턴이란 개념을 재의미화 하고 있다.

1) 그람시는 1926년 10월 무솔리니의 암살을 계획했다는 구실로 체포되어 20년 4개월 5일형을 선고받았다. 투옥 중에도 활발하게 역사와 사회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썼고, 이는 그가 죽은 후 『옥중수고(Quaderni del carcere)』로 엮어졌다. 여기서 쓰인 ‘은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단순히 검열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하나는 종래의 개념을 재정의, 또는 재해석하려는 의도를 담은 경우다. ‘서발턴’은 후자의 이유에서 나온 은어였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옥초,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제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138-139면 참조.

2) 강옥초,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제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140면.

3) 그람시의 서발턴에 대한 개념은 『옥중수고』(1975)를 바탕으로 강옥초가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함. 강옥초, 앞의 논문 참조.

4)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168면. Ranajit Guha, “Pregace”, Subaltern Studies, vo I., p. vii. (재인용)

5) 송명희, 『캐나다한인소설에 재현된 서발턴의 서사와 거주 공간의 분리』, 『비평문학』 57, 한국

하지만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을 연구한 강옥초는, 구하는 지배 엘리트의 역사 서술을 전복하려는 의도가 앞서서 서발턴 집단의 자율성을 과대평가한 면이 없지 않았고,⁶⁾ 스피박은 “초기 서발턴 연구가 지닌 본질주의적이고 목적론적인 경향의 맹점을 비판하는 데는 날카로움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예컨대 과부 순사라든지 정절을 의심받았던 여성의 자살에 대한 텍스트적 독해라는 맥빠진 결과를 산출하고”⁷⁾ 말았음을 지적한다.⁸⁾ 또한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은 “마르크스의 계급 이념을 계승하되, 그것이 띠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편향성과 기계론적 진화주의를 벗어나자는 것”⁹⁾인데 비해 최근의 서발턴 연구에서는 “계급과 그들의 변혁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상실하면서 연구자에 따라 지나치게 넓거나 지나치게 작게, 독특한 방식으로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경원은 서발턴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¹⁰⁾에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스피박의 비판적 자의식은 “문제제기에는 적극적이고 철저하지만, 대안제시에서는 유보적이거나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애매모호하다”¹¹⁾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들의 지적은 옳은 반면 옳지 않다. 스피박의 연구는 그동안 서발턴의 의식과 행동연구에만 치중해왔던 서발턴 연구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작 텍스트적 독해’에 머무르고 만다는 점에서 ‘맥빠지는 결과’라는 지적은 옳다. 반면 그러한 텍스트적 독해가 불러온 국제적 파장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심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비평문학회, 2015, 123면.

6) 강옥초, 앞의 논문, 140면 각주 참조.

7) 강옥초, 앞의 논문, 151면.

8) 강옥초는 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249-250면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9) 강옥초, 앞의 논문, 151면.

10)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484면.

11) 이경원, 위의 책, 468면.

는 점에서 옳지 않다. 스피박은 종속적 상황에 놓인 구체적인 개인, 특히 여성 서발턴에 집중함으로써 지배 담론에서의 개인의 침묵과 왜곡된 발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발턴으로서의 여성은 “행위 능력의 조작을 통해 집단성 자체의 가능성이 끈질기게 폐쇄된다고 시사”¹²⁾한다. 이는 조직적 저항과 연대를 불가능하게 보는 입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스피박은 권력 담론과 국제 시민사회에 “책임의 윤리에 입각하여—인정의 기반으로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타자에게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대변’의 자비로운 의도를 대리보충 할 것을 요청”¹³⁾하는 한편, 새로운 페다고지, 즉 “아래로부터의 세속적 교육”¹⁴⁾을 제안하고 있다.

스피박의 텍스트적 독해는 ‘서발턴’의 개념을 ‘집단’에서 ‘개인’으로 그 초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없이 집단은 있을 수 없다. 그람시가 말한 ‘종속된 집단’ 속에 다중으로 종속된 집단이 그동안 ‘남성’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 또한 스피박의 ‘맥빠지는’ 텍스트적 독해가 없었더라면 알아채기 힘들었을, 철저하게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적 가부장제의 소산이다.

‘서발턴’이라는 용어의 탄생 배경에는 소외된 집단과 다중적으로 종속된 집단들의 경험, 그리고 저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서발턴의 개념은 “국가와 민족, 계급 등의 거대 담론에 의해 배제되고 억압되어 그 존재가 인식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¹⁵⁾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저항이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저항의 형태가 반드시 봉기일 수는 없다.

12)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C.모리스 역음,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 2013, 80면.

13)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위의 책, 162면.

14) 진 프랑코, 『서발턴이티로부터 이동하기』,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위의 책, 373면.

15) 강옥초, 앞의 논문, 135면.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다. 192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혁명적 ‘이탈리아’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탄생한 ‘서발턴’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시대적 배경과, ‘초국가적으로 해체된 공간적 배경에서 다양하게 재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발턴의 개념을 “전(全)지구상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으며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갖는 주체”¹⁶⁾로 정의한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김재영의 『코끼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¹⁷⁾ 이는 저항성이 내포된 종속적 집단으로서의 서발턴에서, 자본주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적 가부장제에 종속된 개인, 특히 제3세계의, 특히 여성으로서의 서발턴으로 초점이 옮겨갈 수 있었던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본고에서는 타자화·주변화 된 채 자본의 권력에 종속된 개인인 이주노동자로서의 서발턴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그러한 서발턴에 또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서발턴, 즉 이동으로서의 서발턴을 분석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김재영의 『코끼리』¹⁸⁾는 대부분 다문화적 측면에서 논의가 있어 왔다.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탈영토화’하고, 다시 낯선 곳에서 ‘재영토화’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21세기 한국 문학에서 “가장 남루하고 비참하며 슬픈 타자”¹⁹⁾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탈영토화’ 되어본 적도 없이 ‘재영토화’ 된—혹은 그에 실패한—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도, 국적도 없이 그림자처럼 종속된 이주민들의 자녀들을 서발턴의 개념에서 분석하는 일은 서발턴 연구 동향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16)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117면.

17) 지금까지 발행된 문헌이나 자료에서 서발턴은 ‘하위주체’, ‘하층민’, ‘하위 집단’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서발턴의 속성인 서발터니티(subalternity: 종속)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번역인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스피박 식의 ‘서발턴’이란 개념을 쓰기로 한다.

18)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9.

19)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21면.

는 주변화 된 타자 소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타자에 가려진, 혹은 은폐된 그림자의 존재를 소환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와 이주노동자로서의 서발턴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1944)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위기는 경제적 인 붕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체된 공동체, 파열된 연대, 훼손된 자연으로 인한 것”²⁰⁾이었다. 시장의 자기 조정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은 시장을 모델로 그 시장에 종속되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해 왔다. 그 결과 노동, 토지, 돈을 ‘생산의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주거지, 생계, 공동체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²¹⁾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²²⁾를 말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생산 수단’은 생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일컫게 되었으며,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해 보장받는 생산 활동 역시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결국 주거지, 생계, 공동체는 훼손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생산 수단은 세계 최강국의 영향력 아래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전(全)지구적 자본주의라 일컬어지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구적 자본주의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 지구촌과 다문화에 관

20)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임옥희 옮김, 『전진하는 페미니즘:여성주의 상상력, 반란과 반전의 역사』, 돌베개, 2017, 316면.

21) 자유시장주의와 사회보호주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낸시 프레이저의 위의 책, 316-317면 참조.

22) 네이버 어학사전 참조, m.terms.naver.com

련된 담론이다. 한국에도 198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등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지표체계에 의한 체류 외국인 현황에 의하면²³⁾, 2010년 918,917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8년에는 2,367,607명으로, 8년 만에 약 2.5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문학에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등의 다문화적 소재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2000년대 한국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중 주목할 만한 작품이 김재영의 『코끼리』이다. 김재영은 “작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루어온”²⁴⁾ 작가이기도 하고, “이질적인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기제에 기초한, 한국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나 왜곡된 욕망에 대한 사유나 성찰을 자극”²⁵⁾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반면 ‘풍성한 다문화담론에 비해 작품들의 수준이 높거나 다채롭지 못’²⁶⁾한 작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국내의 현대문학과 교수 350명이 뽑은 ‘2005 올해의 문체소설’(푸른사상)과 작가들이 뽑은 ‘2005 올해의 좋은 소설’(도서출판 작가)에 나란히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집필을 위해 작가가 수개월 동안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²⁷⁾은 그만큼 그들의 현실을 꺾진하게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코끼리』에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배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성적·계급적·인종적 타자의 집합체이며, 역사의 주변부에 위치한 신(新)식민적 피억압자의 총칭”²⁸⁾인 ‘서발턴’(the subaltern)의 서사가 명확하

23)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4) 정호용, 『절망과 고통의 현실, 연민의 마음』,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9.

25) 공종구, 『김재영 소설의 디아스포라 표상』, 『국어문학59』, 국어문학회, 2015, 115면.

26) 이미림, 『김재영 소설에 나타난 이주와 다문화적 양상-〈코끼리〉(실천문학사, 2005), 〈폭식〉(창비, 2009)을 중심으로』,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27) 천연희, 『현대 소설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전북대학교원, 2008.

28) 이경원, 앞의 책, 483면.

게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코끼리』는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가구단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열세 살 소년 ‘나’는 네팔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마흔 번째 생일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을 ‘나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타 이주노동자 문학이나 다문화 문학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를 주체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대부분의 문학 속 그들은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포착되곤 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아카스’의 아버지 ‘어루준’은 네팔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다 온 사람이다. 인구의 95%가 농촌에 살고, 90%가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네팔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다가 왔다는 정보는 그가 고국에서는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아버지 손가락에는 등고선처럼 생긴 지문이 없다. 닳아버린 지 오래여서 지장을 찍으면 짓이겨진 꽃물자국 같은 게 묻어난다. 사람들은 지문이 없으니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지 않다면 노끈에 꿰인 가자미처럼 취급당할 리가 없다. 야 임마, 혹은 씨발놈아, 라는 이름의 외국인 노동자 한 께미. <김재영, 『코끼리』, 13면>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한 일은 “하루에 수백 개씩의 전구”를 만드는 일이고, 지문이 닳도록 일을 해도 “씨발놈아, 라는 가자미처럼 취급” 당하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다. “고약한 단내가” 날 정도로 “종일 쉬지 않고 일한 몸뚱이”로 폐가 “나달나달해”지고, “말을 더듬고 숨이 차 혈떡”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일만 하지만, 정작 문화생활이나 기본적인 여가생활은 꿈도 못 꾸다.

작년 겨울에 아버지와 어머니 생일 전날 백화점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입구에 서 있는 양복쟁이 아저씨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보여주며 나 돈 있어요, 여기 봐요, 나도 물건 살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양복쟁이는 막무가내였다. 우리는 결국 어머니가 바라던 고급 블라우스를 사지 못했다. <김재영, 『코끼리』, 32-33면>

아내의 생일을 맞아 찾아간 백화점 입구에서는 출입조차 거절당한다. 게다가 “돈도 못 벌어오는” 남편에, “의료보험조차 없는 처지를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언제나 한국 남자와 혼인해서 잘살고 있다는 친구 얘기”로 신세한탄 하던 조선족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한때 고국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지식인인 그가 한국에 와서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모멸감으로 점철된 심리적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한 심리적 고통은 고국을 향수하는 사소한 것들에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춤바를 입고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꾸다. (중략) 꿈에서 아버지는 가녀린 통계꽃과 붉은 비저꽃이 흐드러진 고향 집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가족과 친지에 둘러싸여 달과 바트, 더르가리(야채 반찬), 물소고기에 토마토 양념을 발라 구운 첼라를 실컷 먹었다고 했다. (중략)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려고 하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다 거기 두고 왔단 말이야. 제발.....!” 잠꼬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내쉰다. <김재영, 『코끼리』, 23면>

네팔 풍경이 그려진 달력을 해마다 똑같이 방에 걸어놓고, 밤마다 고향 마을로 찾아가는 꿈을 꾸다. 한국은 그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만 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국은 가족, 일자리, 이웃, 그리고 그의 청춘까지 오롯이 담긴 곳이 돼버렸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악몽이 되고, 차라리 꿈이었음에 안도하게 되는 것이다.

어루준은 ‘심장이 사납게 뛰’던 스물여섯 살에 한국으로 왔다. 조선족 아내를 만나 아카스를 낳고 가정을 이뤘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규제에 들어오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 신세에다가 만신창이가 된 몸과 정신뿐이다. 같은 네팔인인 청년 쿤은 이러한 어루준의 과거의 재현이다.

스물다섯 살 쿤 역시 “한 달에 오십만 원을 벌어 반쯤 저축하겠다는, 딱 삼 년만 참”고 “돈을 벌어서 귀국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하방에서 휴일도 없이 하루 열여섯 시간씩 일하”다가 “시퍼런 멍과 상처로 얼룩”진 채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도망쳐 나왔다.

마을을 빠져나오기 전에 만난 친척 아저씨 말이 생각나.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눈길을 절름대며 걸어온 아저씨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가지마라. 내 절름대는 다리를 보고도 고향을 떠나겠다는 거야? 아네요, 아저씨, 전 구르카 용병으로 전쟁터에 가는 게 아네요. 전 한국으로 일하러 가요. 거긴 안전한 곳이나? 아무렴요. 몇 년 일하고 돌아오면 시내에다 큰 가게를 차릴 수 있어요. <김재영, 『코끼리』, 27면>

세계은행은 『세계개발보고1995』에서 이주를 “노동이 부족한 곳에 노동을 재배치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안전판”이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거두는 효율성 개선도 강조했다. 그 효율성 개선이란 이주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임금, 송출국에는 외환 송금 및 자본 투자에 일어날 수 있는 활성화, 노동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더 낮아지는 생산비용을 말한다.²⁹⁾ 이처럼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은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이데올

29)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앞의 책, 팽 치아, 『생명권력과 새로운 국제 재생산 노동분업』 323면 재인용. (World Development Report 1995,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95,

로기를 통해 피억압자의 목소리를 모호하게 만듦으로써가 아니라, 피억압자의 바로 그 필요를 지구적 자본주의의 직물 안으로 병합함으로써 견고해진다.³⁰⁾ 지구적 자본주의는 생명권력의 테크닉을 통해 인적 자본을 전쟁터로 혹은 노동 현장으로 전개하고 규제한다. 또한 그것이 피억압자의 위치를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네팔은 2008년 군주제와 왕정이 폐지되고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불리한 조건과 험난한 역사를 이중으로 지녀왔다. 해외로 이주한 네팔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목적으로 고국을 떠나게 된다. 2018년 한국의 GDP가 1조 7,208억 9천만 달러인데 비해 네팔의 GDP는 288억 1,249만 달러 정도³¹⁾로 집계됐다. 거의 600배의 차이가 나는 수치다.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그들이 그만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고 스스로 택한 이주인 만큼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외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제 노동 분업이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연관돼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들의 선택이 진정 ‘그들의 선택’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해 보인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과 노동 이주의 과정에 있는 노동자의 행동은 자본주의적 축적이라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³²⁾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일곱 개의 코를 가진, 피체우라에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중

pp.64-66.)

30)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앞의 책, 330면.

31) 2018년 통계청 KOSIS 기준.

32)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이주 선택에 대한 ‘도구성의 유동적인 장’에 대한 설명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앞의 책, 339면 참조.

략)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중략)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김재영, 『코끼리』, 20-21면>

그리하여 신들의 왕을 태우고 다니다가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힌두교의 신화 속 코끼리는 바로 이주노동자의 상징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끼리의 격이 낮아지게 된 것이 코끼리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창조주 브라마’의 잘못이라는 사실이다.

3. 신민족주의 시대와 아동으로서의 서발탄

민족주의³³⁾라는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유럽에서 시작된 말로 정치적 사조와 사회 실천 운동의 형태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인해 ‘민족’보다 ‘이념’의 갈등이 부각되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민족이라는 개념은 수면 아래로 침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종식되자 새로운 세계적 지평과 함께 민족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일단의 신흥국가들을 탄생시켰”고,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세계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으며, “많은 새로운 민족끼리의 충돌이 발생” 되기도 했다. 또한 “글

33) 논자들마다 민족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러한 정의 안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 명제를 Smith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세계는 민족으로 분할되어 있고, 각각의 민족은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가지며, 둘째, 민족은 모든 정치권력의 근원이고, 민족에 대한 충성은 다른 것에 대한 충성을 압도한다. 셋째, 자유로워지기 위해 인간은 특정한 민족과 일체화되어야 하고, 넷째, 진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민족은 자치적이어야 하며, 다섯째, 세계의 평화와 정의가 충만하기 위해서, 민족은 자유롭고 안전해야 한다 - 안소니D. 스미스, 이재석 역, 『세계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1997, 205면.

로벌 전략 파워와 세계 질서의 변환을 촉진시켜 민중들의 거대한 응집력을 자극”하기도 했는데, 이를 “신민족주의 혹은 현대민족주의”라 한다.³⁴⁾

민족과 국가의 관계는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민족은 있지만 국가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한 나라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민족주의 시대에서의 ‘민족’은 초국가적 개념으로 재탄생되고,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게 된다. 이는 또한 다양한 문제를 발현시키기도 한다. 특히 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 타 국가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자녀들의 ‘민족’ 개념은 초국가적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적 없는 아이’ 즉,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2015년 9월, 중앙일보에서 기획 기사로 “숨어사는 아이 2만 명”을 다룬 적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불법 체류자 부모와 그들의 자녀 자혼기르와 잠시드의 사연이 메인 기사에서 다루어졌다.

원칙대로라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 체류가 탄로 날까봐 그것도 하지 못했다. 자혼기르와 잠시드는 그렇게 국적 없는 아이가 됐다. 아니, 공식기록상으로는 태어난 흔적이 없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가 비싸다. 동생 잠시드가 치과에 갈 수 없는 이유다. 웬만큼 아픈 건 진통제를 먹고 참는다. 자칫 잡히면 한국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자혼기르의 부모는 형제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한다. 부모는 “사실상 숨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학교 교육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 서비스를 누리기도 어렵다.³⁵⁾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아동이 부모의 출신 등에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할 권리,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

34) 신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장건문, 『현대 중국 신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 신민족주의의 발흥원인, 특징 및 발전전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원, 2012, 2면 참조.

35) 중앙일보, 2015년 9월 10일자 5면 기사.

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아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1962년에 UN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1년 이에 비준했다. 하지만 2011년 한국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CRC)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은 출생신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측은 “출생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부모가 한국인이어야 자녀도 한국인’이라는 속인(屬人)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법을 고치려면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출입국 관리자가 재량을 발휘하도록 해서 국적이 없어도 미성년자는 통상 단속하지 않으며, 미행해서 부모를 적발하지도 않는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고, 고등학교도 교장 재량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의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³⁶⁾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한국에는 자흔기르처럼 국적 없는 아이가 2만 명이나 있다. 이는 성인 불법 체류자 수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 부모를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에 온 뒤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아이도 5,000명에 이른다. 이들 역시 의료·교육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지낸다. 이들은 출생신고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숨어사는’ 생명이므로 사망신고가 필요 없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들이다.

『코끼리』의 주인공인 열세 살 아카스 역시 국적 없는 아이다. 국적이 없으므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환경과 생활 역시 보장 받을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십여 년 전까지 돼지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36) 중앙일보, 2015년 9월 기획 기사 참조.

문 다섯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에 살고 있다. 쪽마루도 없는데다 처마마저 참새 꼬리처럼 짧아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한다. <김재영, 『코끼리』, 9면>

공장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 페인트 냄새, 가구 공장의 옷 냄새가 빈속을 메스껍게 한다. 코를 움켜쥔 채 인력구함, 사채 쓸 분, 빅토리아 관광나이트 따위의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공장 벽과 전봇대를 지난다.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새빨간 물이 도랑을 붉게 물들이며 흘러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갓 잡은 돼지 피처럼 보인다. <김재영, 『코끼리』, 15면>

UN아동인권권리협약 27조 3항에 의하면³⁷⁾, “국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택과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카스가 ‘국가의 ‘적절한 수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소속임을 증명하는 ‘국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카스는 무국적자다.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란 법률상 무국적자와 사실상 무국자로 구분된다. 법률상 무국적자란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적이 취소된 경우처럼 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률로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사실상 무국적자란 국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국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아카스는 후자의 경우다. 현재 무국적 아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는 ‘출생 등록’이다.³⁸⁾ 하지만 병원의 ‘출생증명서’의 경우, 추후 부모의 출신국에서 그 출생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는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출생증명서’를 받

37) 초록우산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참조.

38) 무국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참조.

급 받지 않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한국에 네 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내겐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다.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일 뿐이다. 살아 있지만 태어난 적도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김재영, 『코끼리』, 23면>

국가지표체계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불법 체류자는 355,126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법 체류는 곧 불법 취업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노동시장 내에서도 불법 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유린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는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푸코 식의 생명권력을 예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아카스는 한국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고, 성인이 된 후 혼인 신고는 물론 정상 취업도 할 수 없다. 물론 이 역시 성인이 된 후의 일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동들이 한국의 의무교육 현장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의지에 따라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학교뿐만 아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철저하게’ 타자화 되고 주변화 된다.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얗게졌나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중략) 여름 숲

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비비충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 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김재영, 『코끼리』, 18면>

“아동은 양육자나 교사 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계획을 세우거나,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주위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고무시키³⁹⁾지만,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나는 ‘맥락(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⁴⁰⁾ 결국 아카스는 “가망 없는 인정을 기대하는 것보다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강한 심장을 갖는” 게 더 낫다는 사고를, 그러한 환경과 실제적 경험으로 터득한다.

나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고 나서 아주머니가 담배를 찾는 동안 거름매실라 양념 봉지를 허리띠 안쪽에 쑤셔넣는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 쿠우 한 병을 잠바 안쪽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다.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견딜만하다. <김재영, 『코끼리』, 28면>

아동의 성숙은 “미래를 향한 현재가 담보된 시간적 논리를 기반으로”하며, “이는 곧 삶을 알게 되는 것, 삶의 여러 가지 사실이나 환상 또는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⁴¹⁾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카스에게

39) 전수연, 『아동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학원, 2002, 12면.

40) 황상민, 김도환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 철학적 탐색: 발달현상의 연구와 발달적 맥락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2001, 14면.

41) 김은미, 『아이러니를 통한 최인호 소설의 '애늬은이' 인물 연구』, 경남대학교학원, 2011, 40면.

는 나아갈 미래는 물론 담보된 ‘현재’조차 없다. 현실은 날것 그대로 아카스에게 노출되지만, 그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또한 없다.

4. 저항성의 주체, 그 희망적 서사

라캉에게 주체는 거울 속의 이미지, 즉 타자의 이미지다. 프로이드는 ‘초자아의 입장에서 자아를 판단하는 척도가 자아이상이’⁴²⁾ 된다고 했다. 초자아는 타자의 이미지 속에서 자아를 판단하며, 이상화된 주체를 형성한다.

아카스에게 이상화된 주체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 속에 섞여서도 자신이 이방인임이 들통 나지 않을 만큼만의 보호색을 욕망한다. “니들은 손으로 밥먹고 손으로 밭 댈는다”는 잘못된 편견 정도야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사람처럼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피부색만큼은 행동을 교정하거나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카스가 한국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애초에 불가능한 욕망이다.

“너 영어를 잘 못하니? 외국 애라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는 이제부터 영어로만 말하라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떡볶이와 스파게티를 주지 않겠다면서. <김재영, 『코끼리』, 36면>

아카스가 욕망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상화된 주체는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처럼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과 오뎅한 코, 그리고 큰 키를 미(美)의 기준에 넣고 몸의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영어를 잘하는

42)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17면.

것은 미국 사람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시간적·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어학연수는 물론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학원에 자녀를 보낸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는 영어를 잘 할 줄 알았던 아들의 외국인 친구가 영어를 쓰지 않자 대접이 달라진다. 똑같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하얗고 영어를 잘 쓰는 외국인은 상위 계급이 되고, 피부색이 까맣고 영어를 못 하는 외국인은 하위 계급이 된다.

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인물은 쿤이다. 그가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네팔보다 한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쿤을 쉽게 환대하지 않았다.

“..... 너들, 이 나라가 워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 옛날에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땐 손가락은 유도 아녘어. 팔뚝이 날아가고 모가지가 멍멍 멍멍 했으니까.” (중략)

“인제 한국 놈들은 이런 데서 일 안 혀. 막말로 씨발, 험한 일이니까 니들 시키지 존 일 시키려고 데려왔간?” (중략)

“어차피 너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공장 차리고 사장되려고 여기 왔잖냐.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배워 가. 다 산 교육이여.” (김재영, 『코끼리』, 25-26면)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Dangerous)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에 값싼 노동 자본으로 대체된 것이 저개발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역시 노동자의 권리 따위는 없었으며,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해외 각지로 뺏어나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일궈낸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호사가 과두시사(蝸蟻時事)를 망각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쿤이

보기에 그런 한국 사람들이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 사람’이다.

쿤은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에 나이키 점퍼를 입고 있다. 동대문시장에서 산 짝퉁이지만 제법 그럴듯해 보인다. (중략) “한국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 외국인한테 거부감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친절한 거라고? 웃기는 소리 마. 미국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친절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지.” (김재영, 『코끼리』, 17면)

따라서 쿤에게는 ‘미국 사람’이 욕망의 대상이 된다. 미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머리카락도 노랗게 염색을 한다. 차별과 멸시로 점철된 한국 사람에게 양값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쿤은 더 이상 머리카락에 노랗게 물들일 일이 없어졌다. “여기까지 와서 손가락을 잘리는 미국 사람은 없을”⁴³⁾ 것이기 때문이다.

쿤에게 미국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닿을 수 없는 욕망이 된다. 파농에 의하면, 흑인이 “백인이 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원인은 그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의 열등의식을 조장하기 때문”이며, “그 사회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영속화하고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조장함으로써 스스로를 공고하게 한다.”⁴⁴⁾ 결국 쿤의 거세된 욕망은 한국 사회의 열등의식에서 기인한 것이 된다.

구덩이에 발이 빠진 코끼리는 큰 귀를 펴리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뒷다리는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구덩이는 삼시간에 높으로 변하더니 뭉든 집어삼킬 태세로 거세게

43) 김재영, 앞의 책, 19면.

44) 이경원, 앞의 책, 215면.

휘돌아간다. 아, ‘외’다. 현기증이 일도록 빠르게 소용돌이치는 ‘외.....’
코끼리는 맥없이 빨려 들어간다. <김재영, 『코끼리』, 38면>

아카스는 이들의 심장 수술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모았던 돈을 모두 도둑맞고 실의에 빠져 있던 비재아저씨가, 급기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이주노동자를 죽이고 지갑을 빼앗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소용돌이에 휩쓸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죽어가는 코끼리의 모습을 연상한다. 아카스에게 이주노동자인 이들의 삶은 결국 ‘외’에 빠진 ‘코끼리’였던 것이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민낯까지 여과 없이 겪은 아카스는 ‘애늬은이’가 되어간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실낱같은 희망의 빛을 감지할 수 있다.

너무 다양한 삶을 보아버린 열세 살 내 머릿속은 히말라야처럼 굴곡이
꽤어 있다. 세계지도 속의 히말라야는 사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다. 하지
만 히말라야는 지도로 그릴 수 없는 땅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중략)
사람도 어려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 뇌가 심하게 주름진다니까 내 나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 거다. <김재영, 『코끼리』, 11면>

네팔을 상징하는 히말라야는 비록 세계지도 속에서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축소되어 있지만 “지도로 그릴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산이다.
이러한 사실은 히말라야가 네팔인들의 자부심임과 동시에 “전(全)지구상
에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으며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
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서발탄임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거대한 땅도 지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축소되고 눌러진 등고선
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선택의 여지없이 종속된 이주노동자의 자녀, 즉 아동으로서

의 서발턴에게서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저항성을 갖는 주체”로의 희망을 암시하는 서사 전략이 된다. 어려서부터의 다양한 경험이 아카스의 뇌를 히말라야처럼 굴곡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카스 뇌의 주름이 심하면 심할수록 축적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축소된 세계지도 속 히말라야처럼 펼치는 순간 거대한 위용이 드러날 것 같은 암시를 주게 된다. 또한 뇌가 심하게 주름진다는 아카스의 진술에서 ‘뇌’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신체’에 소속된 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뇌는 의식과 사고, 그리고 인간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아카스의 ‘뇌’는 다양한 경험으로 굴곡지며 곳곳에 ‘저항성’을 축적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처럼 “저항성을 갖는 주체”로서의 희망적 암시는 ‘손가락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돈을 훔쳐 달아난 알리의 손가락을 초여름에 다섯 개나 묻었는데 하나도 없다. 작년에 묻은 베트남 아저씨 손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중략) 순간 하얀 뼈다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주머니에서 손가락을 꺼낸다. 휴지에 말렸던 검붉은 손가락을 뼈다귀들 틈에 놓는다. (중략) 수돗가 쪽으로 침을 튕 뱉고 나서 두 손을 모은다. ‘파괴의 신 시바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는 제물을 바라지 마세요. 특히 아버지하고 제 손가락만큼은 절대.’ <김재영, 『코끼리』, 20면>

술하게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목격한 아카스는 그 잘린 손가락들을 얻어서 험두교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결국 아버지의 손가락이나 자신의 손가락 역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간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손가락을 땅에 묻고 제의를 지내는 듯한 아카스의 행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니 “더는 제물을 바라지 마”시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아카스가 열세 살의 어린 아이란 점에

서 더욱 의미가 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유효한 명제이다. 더구나 그들의 나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떡’거나 ‘드’는 것이다. 나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 나가는 글

김재영은 다문화 사회의 문제의식을 문학적 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작가이기도 하다.⁴⁵⁾ 그의 작품 중에는 “이주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시선에 의한 디아스포라의 상실감이나 비애”⁴⁶⁾를 주제로 삼은 것들이 많다. 『코끼리』 외에도 『아홉 개의 푸른 쏘나』와 『꽃가마배』는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 『앵초』, 『폭식』, 『M역의 나비』는 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작품들은 “1920년대 카프의 문학이나 1980년대 노동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공식주의나 도식성의 문제 및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단 하나의 분명한 문제의식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양한 각도로 민족과 국가의 성찰과 심문을 요구한다. 김재영의 작품 속 인물들이 서발턴과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따라서 서발턴의 개념으로 『코끼리』를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하위 주체’, ‘하위 계급’ 등으로만 해석되어오던 서발턴을 ‘침묵당하는 제3세계 여

45) 작가 김재영은 현재 문화예술연구소 <바라>의 대표이면서 제주 외국인평화공동체 이사를 맡고 있다.

46) 공종구, 앞의 논문, 166면.

성 서발턴'으로 포착해 낸 스피박 식 해석일 수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의 생명권력 테크닉으로 인해 형성된 이주노동자로서의 서발턴에 비해 그런 서발턴의 서발턴이 된 무국적 아동으로서의 서발턴은, 당연히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부분이다.

구하와 스피박이 지적했듯 서발턴의 '재현(representation)'은 자칫 지식인들이 자신들은 투명한 존재로 만든 채 '대변(speaking)'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적합하게 '다시-제시(re-presentation)'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소설에 나타나는 서발턴의 서사는 반드시 "책임의 윤리에 입각"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역할은 작가의 몫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스피박이 꾸준히 문제 삼은 '제3세계 주체가 서구 담론 안에서 재현되는 방식'에 입각하여 '제3세계 주체가 한국 다문화 문학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 볼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코끼리』에 나타난 서발턴의 서사는 이주노동자와 무국적자 아동을 주체적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6,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어린 시절에 겪고 2000년대 지구적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작가의 '구체적 경험'이 문제의식으로 재현된 것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코끼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다문화'적 양상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없지 않다.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계급·민족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 현상은 전지구적 현상이지만, 이주자들은 여전히 환대받지 못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 속에 함께 '존재'하지 못하고 철저히 타자화·주변화 되어 있으며, 국가주의에 의해 '불법'으로 낙인이라도 찍히고 나면 그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가 무국적 이주민이라는 사실로 인해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동'을 서발턴의 개념으로 재고해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서발턴의 개념에 "계급, 카스트, 연령, 젠더, 직위의 측면" 외에 '영토'와 '자본'의 개념을 추가해야 할 때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김재영,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9.

2. 단행본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이경원, 『검은 역사, 하얀 이론』, 한길사, 2011.

이미림,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 2013.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임옥희 옮김, 『진진하는 페미니즘:여성주의 상상력, 비판과 반전의 역사』, 돌베개, 2017.

안쏘니D.스미스, 이재석 역, 『세계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1997.

3. 논문

강옥초, 『그림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제8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2.

공종구, 『김재영 소설의 디아스포라 표상』, 『국어문학』 제59호, 국어문학회, 2015.

김은미, 『아이러니를 통한 최인호 소설의 ‘애늬은이’ 인물 연구』, 경남대학원, 2011.

송명희, 『캐나다한인소설에 재현된 서발턴의 서사와 거주 공간의 분리』, 『비평문학』 57, 한국비평문학회, 2015.

이미림, 『김재영 소설에 나타난 이주와 다문화적 양상-〈코끼리〉(실천문학사, 2005), 〈폭식〉(창비,2009)을 중심으로』, 『배달말』 57, 배달말학회, 2015.

장건문, 『현대 중국 신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신민족주의의 발흥원인, 특징 및 발전 전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원, 2012.

전수연, 『아동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2002.

천연희, 『현대 소설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전북대학원, 2008.

황상민, 김도환, 『발달심리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과학 철학적 탐색:바랄현상의 연구와 발달적 맥락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2001.

4. 참고 웹사이트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

초록우산어린이재단 www.childfund.or.kr

중앙일보 joongang.joins.com

<Abstract>

The Analysis for the Narrative of Subaltern with *The Elephant*

Lee, Nam-Jung

Gayatri Chakravorty Spivak defined *Subaltern* as ‘a resistant subject sacrificed by capitalism but does not follow it and exists on whole world as diverse forms.’

Supporting her definition, I will analyze a Korean novel *The Elephant* authored by Kim Jaeyoung.

This paper starts from the possibility of the expansion in its meaning. At first, *Subaltern* means ‘a subordinate group with resistance’ but it expanded as ‘a subordinate group to patriarchy from capitalism and ideology’, ‘especially in the third world group’ and ‘especially in the female group.’

I will focus on the child subaltern. They are a subordinate person, an immigrant worker subaltern, and they are even subordinate to an immigrant worker subaltern.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s about *The Elephant* with a multicultural view.

There are some reterritorialized stories after deterritorialized with various reasons and intensions. In 21st Century, it repeats in Korean novel as well.

But some stories are reterritorialized without deterritorialization or even failed one to be reterritorialized. It is easily forgotten.

Immigrant children has no choice, no nationality, they are just like a shadow. So, it is helpful for the subaltern study to analyze them with a concept *Child-Subaltern*.

Kim Jaeyoung didn't stop just talking multicultural problem, she put his philosophy into action.

In her work, she usually takes its subject as 'Diaspora's sense of loss and sorrow.' Meanwhile, it has a limitation with *Formalism* in 1920th *KARP*(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 and 1980th *Labor Literature*. It converges to one obvious critical mind. It demands an introspection and interrogation to the country and nation.

At this point, the characters in Kim's novel connected to *Subaltern*.

Multi-culture is a global situation. But Immigrants are still not welcomed. They are thoroughly otherized, and marginalized. In addition, they can't talk about their own problem if branded as illegal.

Especially stateless children are regarded as a ghost. So, it has to be dealt with *Subltern*.

Key words: Subaltern, Child-Subaltern, Right of children, Stateless child, Subject of Resistance, The Elephant, Kim Jaeyoung, Multicultural novel, Life without existence

투 고 일 : 2020년 1월 9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18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